

(20131106 동국미술대전)

축 사

청명함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온 누리를 비추고, 맑은 기운이 우리를 감싸는 계절을 맞이하여 동국대학교 교수와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동국미술대전을 개최하는 것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이번 미술대전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예술을 통해 중생들의 삶을 풍요롭고 향기롭게 하고 있는 동문들이 학교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처음으로 함께한다는데 더욱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것은 꿈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꿈을 꾸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처럼, 우리 모두가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의 발전이라는 꿈을 꾸고 행동한다면 동국대학교의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 자의 발원에는 창조의 힘이 잠재하고 있으며 이번 동국미술대전은 이러한 꿈을 형상화하고 이루고자 하는 동국예술인들의 강한 원력이 응집된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미술대전을 통해 동국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정신의 공허함을 넘어 정서적 위안과 창조적 영감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에 소외된 이들은 절망과 고통에 대한 치유뿐만 아니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꿈과 희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동국미술대전이 꿈과 희망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등대가 되기를 기대하며, 참여하신 작가와 전시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사대부중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기를 발원합니다.

불기2557(2013)년 11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